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

김 교 성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 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실업, 재취업, 비정규직, 이산시간분석

1. 서 론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률이 3.6%(2004년 3분기)로 다소 안정되면서 실업의 문제와 더불어 취업자의 고용의 형태(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보다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혹은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일 것이다(류재우·김재홍, 2000). 2003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약 631만 5천명으로 44.6%에 달하며, 비정규직은 약 783만 4천명으로 55.4%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임시직이 26.3%로 가장 많고, 기간제고용이 17.0%, 호출근로가 3.5%, 독립도급이 3.4%,

* 본 논문은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2005년)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그리고 임시 파트타임이 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¹⁾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안정성(job stability)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데 있다.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항상 해고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수당이나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회보험이나 법정 혹은 비법정 사회복지의 혜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다(장지연, 2001).²⁾ 실업의 문제에 있어 실업기간동안 실업자와 실업가무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업자의 재취업을 통한 안정된 생활의 유지가 올바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강철희·김교성, 1999)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실업자의 높은 재취업률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로 논의될 수 있지만, 실업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였는지 아니면 불안정한 직장에 재취업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³⁾ 최근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종단적인 자료의 구축과 더불어 실업과 재취업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여부(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일 뿐, 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일은 재취업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의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 국민들의 실업 및 재취업과 관련된 삶의 현황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과 연구주제는 실업자의 재취업양상⁴⁾을 살펴보고 재취업한 대상들의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의 다항명목로짓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고용이나 실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수들의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자료를 6년이라는 관찰기간에 따라 결합(pooling)하여, 실업과 재취업 및 재취업형태에 대한 현상을 이산

- 1) 통계청에서는 2000년 8월부터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시 비정규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 간 이견이 많아지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형태의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의 규모와 노동조건을 재분석하여 매년 말 통계집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 2) 장지연(2001)은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형평성(fairness)의 문제, 평등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전체의 비효율성 문제를 비정규직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 3) 실제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결정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면적인(cross-sectional) 자료에 기초한 현재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종단면적인(longitudinal) 자료에 기초하여 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 4) 그러나 실업자의 재취업의 경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취업자의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비임금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분석(discrete data analysis)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식적 기반의 내용을 확대시켰으며, 실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본 장에서 다루게 될 기존 연구의 주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업자의 재취업여부 및 실업기간에 관한 연구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에 관한 외국의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종단적 자료에 기초하여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전환, 즉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나 실업 관련 프로그램의 재취업에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업과 재취업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실증적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구축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연구와 그 주제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SLFS(Swiss Labo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연구한 Curti(1998)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의 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높으며, 동시에 실업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직업훈련의 효과도 분석하고 있는데, 재취업에 대한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Meyer(1990)도 CWBH(Continuous Wage and Benefit History) 자료를 활용하여, Curti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그는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임금, 낮은 실업급여수준 등이 재취업 확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수 등의 변수가 재취업확률을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MCPS(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와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하여 실업자의 실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Levin(1993)도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양아동수가 적을수록 실업기간이 증가한다고 하여, 앞선 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PSID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Idoson and Valletta(1996)의 연구도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속년수, 실업급여 수급여부, 노조원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DWS(Canada's Survey of Displaced Workers Supplements)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McCall(1997)의 연구도 다양한 고용전환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속년수, 실업급여수급, 5세 미만 아동유무 변수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방하남(1998)은 실업급여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대체로 낮고, 특히 25세 미만 청년층과 고연령층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대구, 경북지역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류기철(1998)의 연구는 남녀 모두 실직 직후 재취업 확률이 실직 후 8주까지 급증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연령은 여자의 경우에만 정적인 관계에서,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에만 정적인 관계에서, 전직장의 임금수준은 부적인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남녀 모두의 경우에 있어 재취업 확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 발생 직전 시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철희·김교성·김진욱(1999)의 연구는 연령, 성별(여성), 임금일액의 변수가 실업기간과 실업탈피율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이전 직장의 업종, 직종, 실직사유 등에 따라 재취업률이 상당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서 실업급여 인정일수가 길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은 늘어나며, 실업급여가 소진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대실업기간이 소진된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짧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강철희·김교성(1999)은 1998년 전국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자료에 기초한 연구에서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가구의 월 평균소득, 가구주여부, 결혼여부, 이전직장의 규모, 실직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태균(1999)도 같은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실업자의 탈피 가능성에 대한 요인으로 연령, 가구주여부, 결혼여부 등이 유의미한 변수 등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연구의 결과도 보이는데, 신동균(1999)은 남성의 장기실업률이 여성보다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 임금수준(reservation wage effect)이 높아져 장기실업률이 높아지며,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과 고령자보다는 25세에서 29세까지의 핵심연령층의 장기실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하여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9년 서울시 실업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한 김교성·류만희(2000)의 연구도 장기실업자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 가구주여부, 가족수, 이전직장의 규모와 근무형태 등이 장기실업자의 실업기간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업자의 정규직 재취업과 비정규직 재취업여부와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연구 주제의 중요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McCall(1997)은 정규직에서 해고된 후 어떠한 요인에 의해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재취업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기간이 길며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실직 후 5개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낮으며, 남성의 경우, 실업 후 5개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비율이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 실업 후 2개월까지만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 실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Vesalainen and Vuori(1999)의 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구직활동에 적극적이며, 실업기간 중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를 보면, 우선 강철희·김교성(1999)은 여성,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전 직장의 업종과 직종, 그리고 고용형태가 실업자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어, 이전 직장의 불안정한 근무형태가 재취업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유선(2003)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의 비정규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령, 교육수준, 이전직장의 직종과 업종, 취업 기업의 노조유무 등의 변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그 가운데 직종과 업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업속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아 노동수요의 변화가 비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재우·김재홍(2000)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상용직 근로자의 특성과 상용직 근로자로의 진입 및 퇴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연구의 결과에서, 연령별로는 30대 후반의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별로는 건설, 도소매숙박업, 금융보험

부동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으며,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권혜자(1996)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3-1995년까지의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이행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 정착률(취업유지)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률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행률이 여성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여성화에 대한 현상은 장지연(2001) 연구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 정착률은 높으며, 고학력자는 비정규직 취업형태를 선호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으로 취업해도 비정규직에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연령별 특성은 비정규직의 구성이 장년(34-49세)과 고령층(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의 비정규직 이동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중도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제1차년도(1998년)부터 제6차년도(2003년)까지의 6년간의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분석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에 걸쳐 그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인 조사이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이러한 노동패널자료는 가구의 경제활동자료와 소득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및 고용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종단적 자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방하남 외, 2002),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된다.

2) 분석대상 및 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우선 연구의 주요 대상인 실업자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 각 년도(t)의 실업자 가운데 전년도(t-1)에 취업되어 있었던 사례(case)만을 추출하였다. 즉, 특정년도에 실업자로 분류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년도에 취업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인 이산시간분석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인 좌측단절(left censoring)의 한계(Allison, 1995)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산시간분석에서 특정 시점(t)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료(data)를 구성하게 될 경우, 분석의 사례는 특정 시점(t)에서 재취업의 가능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특정 시점(t) 이전 단계(t-1)의 대상 사례의 취업여부(취업/실업)에 대

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t) 이전 단계($t-1$)의 개인의 취업과 실업의 조건이 같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선택된 사례의 재취업 가능성은 더욱 일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실업자 사례에 대한 선택은 실제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차년도인 1999년부터 이루어진다.⁵⁾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3차년도인 2000년부터 제5차년도인 2002년까지 각 년도에 새롭게 실업상태에 진입한 사례들도 관찰 사례의 시작 시점으로 적용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⁶⁾ 그러나 제6차년도인 2003년의 실업자 사례는 그 이후 시점($t+1$)인 2004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복수 사례를 가질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1년 1회에 걸쳐 조사되는 자료로서 본 연구의 관찰 시점도 년(year) 단위로 관찰된다. 개별 실업자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각 년도의 측정은 실업자가 재취업한 년도까지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t-1$ 년에 취업하였던 t 년의 실업상태에 있던 개인이 $t+1$ 년에 재취업할 경우, 모든 변수들은 시작 시점인 t 년과 재취업한 $t+1$ 년, 2개의 관찰 사례를 갖게 되며, 종속변수는 t 년은 3으로 $t+1$ 년은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재취업 1과 비정규직 재취업 2로 입력된다.⁷⁾ 따라서 t 년의 실업자가 $t+4$ 년에 재취업할 경우, 모든 변수들은 5개의 관찰개수를 갖게 되며, 종속변수는 t 년부터 $t+3$ 년까지는 3으로 $t+4$ 년에는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1과 2로 입력된다. 즉, 실업자에게 재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 관찰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다만, 관찰의 최종년도(2003년)까지 재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개인)는 우측단절(right censoring)하여 모든 년도의 관찰 사례를 3으로 입력하였다. 따라서 실업자로 구분되어 분석대상에 포함된 개인은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의 연도별 사례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시점에 실업자로 구분되어 분석대상에 포함된 사례 가운데, 불완전한 정보(missing data)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년도에 비임금근로자로 취업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년도에 패널조사에서 이탈(case mortality)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개인의 특정 년도의 특정 변수가 불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은 모든 년도의 관찰 사례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특정 년도에 비임금근로자로 취업된 경우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아 이 또한 개인의 모든 년도의 관찰

- 5)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제1차년도(1998년) 자료는 응답자에게 인터뷰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반면 제2차년도(1999년)부터는 지난 1년간 내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1998년과 1999년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6개월 이상 중복되어 있어 정보의 독립성이 의문스럽다(구인회, 2002). 이것이 제1차년도(1998년)의 실업자를 처음으로 선택하여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1차년도(1998년)의 자료를 제2차년도(1999년)에 실업자로 분류되어 분석대상에 선정된 실업자의 이전 시점($t-1$)에서의 취업여부를 판단하는데 자료로 활용하였다.
- 6) 이럴 경우, 분석의 사례들은 복수 실업주기(multiple spell)를 가질 수 있다. 즉, 1999년도에 실업자로 선택되어 분석대상에 포함된 특정 사례가 2000년에 재취업하여 관찰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도에 다시 실업자로 선택되었을 경우, 그 특정 사례는 1999년도에 시작된 주기와 2001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된 주기 모두를 가지게 되고 두 사례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개별 사례들은 3개의 복수 실업주기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 그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 7) 본 연구의 다항명목로짓분석에서는 분석의 주요 사건(event)을 재취업의 단일 사건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재취업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실업자는 2, 취업자는 1로 입력하지 않는 대신 정규직 재취업자는 1로, 비정규직 재취업자는 2로, 그리고 실업을 유지하는 자는 3으로 입력하였다.

사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이 이탈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특정 사례가 t+1년의 관찰 시점에 이탈된 경우, 그 개인의 관찰 사례는 t년 1개의 사례만을 가지게 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t년의 사례와 t+1년 사례가 유지되다가 t+2년에 이탈된 경우, 그 개인은 우측 단절(right censoring)된 것으로 처리하여, t년과 t+1년의 관찰 사례 2개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대상자의 각 년도 추적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본적인 구성과 결합(pooling)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에 포함된 개인은 모두 272명이며, 사례는 총 661개이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 사례수		
제 1 단계	실업 ¹⁾	154	탈락 ³⁾	30			30		
			불완전 ⁴⁾	10	2	4	1	4	17
			비임금 ⁵⁾	12	4	1	0	17	
	분석대상 ²⁾	90	취업	50	14	5	1	70	
			미취업	40	20	11	8	169	
			단절 ⁶⁾	0	6	4	2		
제 2 단계	실업	88	탈락	10			10		
			불완전	1	1	0	2		
			비임금	3	3	0	6		
	대상	70	취업	41	6	2	49		
			미취업	29	17	10	126		
			단절	0	6	5			
제 3 단계	실업	74	탈락	8			8		
			불완전	0	0	0	0		
			비임금	7	1	8			
	대상	58	취업	30	6	36			
			미취업	28	17	103			
			단절	0	5				
제 4 단계	실업	67	탈락	9			9		
			불완전	2	2	2			
			비임금	2	2	2			
	대상	54	취업	33	33				
			미취업	21	75				
			단절	0					
							661		

- 주 1) 각년도의 새롭게 진입한 실업자 수 2) 실제 분석대상에 포함된 사례
 3) 패널조사에서 이탈되어 제외된 사례 4)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제외된 사례
 5)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제외된 사례 6) 패널조사에서 이탈되어 단절된 사례

<그림 1> 분석대상과 자료의 구성

3) 주요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대상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이다. 분석대상의 재취업여부는 재취업(1)과 실업의 유지(2)로 구분되고, 재취업형태는 정규직 재취업(1), 비정규직 재취업(2), 그리고 실업의 유지(3)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의 개념은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 중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취업상태” 변수를 사용하였다. 취업상태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함’, ‘내 사업을 함’, 그리고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상 분석의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취업자의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주된 일자리 변수 가운데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와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두 변수를 사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였으며,⁹⁾ 이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의 개념을 크게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업의 조작적 정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1주일간의 구직여부” 변수와 “취업가능성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경우를 실업자로 정의하였고, 또한 취업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볼 수 없으나, 구직을 포기한 이유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한 경우거나 현재 근로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의 경우 실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독립변수들은 분석대상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와 이전직장 관련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분석대상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성,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교육수준 변수로 구성된다. 연령 변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만나이” 변수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학력” 변수를 교육년수¹⁰⁾라는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¹¹⁾ 결혼여

8) 또한 한국노동패널자료 비임금근로자의 자기선언적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다.

9) 임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본 연구는 고용형태에서 정규직이라고 답하였으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고 답한 경우, 그 개인은 비정규직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0)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학력은 이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졸업’, ‘수료’, ‘중퇴’, ‘재학중’, ‘휴학중’으로 자세하게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고, ‘졸업’ 이외의 경우에 대한 학년을 측정하고 있어 정확한 교육년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

11) 본 연구는 생존표본분석을 위해 연령과 교육년수 변수를 범주형변수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연령의 경우 25세 미만(1), 25-54세(2), 55세 이상(3)의 3개 범주로 구분하고, 교육년수의 경우, 고졸이하

부 변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혼인상태” 변수는 ‘미혼(한 번도 결혼한 적 없음)’, ‘기혼 유배우자(결혼하였으며 배우자와 살고 있음)’, ‘별거’, ‘이혼’, ‘사별’의 구체적인 속성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미혼(1)과 기혼(2)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¹²⁾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취업자의 업종과 직종 변수도 매우 자세하게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업종 변수는 농림어업건설업(1),¹³⁾ 제조업(2), 공공서비스업(3), 수리·소매업(4), 민간서비스업(5)의 5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 변수는 사무직(1), 서비스직(2), 생산직(3), 단순노무직(4), 관리전문직(5) 등의 5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전 직장의 근무형태 변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를 의미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변수 설명	속성, 단위
종속변수		재취업여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	재취업=1 실업=2
		재취업형태	실업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재취업여부	정규직재취업=1 비정규직재취업=2 실업=3
독립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	가구주의 성	남=1, 여=2
		연령	만 나이	세
		교육수준	교육년수	년
		결혼상태	가구주의 결혼상태	미혼=1, 기혼=2
변수	이전 직장 고용 관련 변수	고용형태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	정규직=1 비정규=2 임금근로자=3
		산업별 종류	이전 직장의 산업별 종류	5개 업종
		직업별 종류	이전 직장의 직업별 종류	5개 직종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의 다항명목로지분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속성을 소개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과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재취업자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빈도, 비중, 평균, 중간값 등의 특성을 기술하였고, 독립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에 따른

(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이상(4)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12) 결국 본 연구에 사용된 결혼여부를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자면,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개인(기혼)과 결혼한 적(미혼)이 없거나 결혼의 경험이 있어도 현재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별, 이혼, 별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이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상은 5명(15.1%)이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상은 28명(84.9%)명이다.

특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사건사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을 이용하여 실직기간의 변화에 따른 실업상태로부터 탈피율(재취업률)의 변화와 고용형태에 따른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사건사분석에서는 실업상태로부터 재취업까지의 탈피율의 변화를 보기 위해 생존표분석(life table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구성범주들이 시간(unemployment duration)에 따라 어떻게 다른 생존율(실업유지율)과 탈피율(재취업률)의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구성범주들이 가지는 생존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 생존표분석은 사건(event)이 발생한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단절(censored)된 사례가 각 구간의 중간시점에서 단절된 것으로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업자의 실업상태에 남아 있는 비율의 추이와 각 시점에서의 실업탈피율 혹은 재취업 위험도의 역동적 추이(hazard ratio)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강철희·김교성, 1999)와 차별화된 이산시간분석(discrete data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항명목로짓분석(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연속시간 모형(discrete time)을 이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측정이 년(year)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항명목로짓분석은 2개 이상의 서열이 명확하지 않은 명목변수들로 구성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다(Allison, 1999).

4.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별 연구대상자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의 총 대상자 272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대상자는 188명(69.1%)이고, 각 년도에 실업상태를 유지한 대상자는 총 84명(30.9%)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대상자의 수가 더욱 많다. 재취업에 성공한 대상자 중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자는 125명으로 전체의 45.9%(취업자의 66.4%)에 달하며,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자는 63명으로 전체의 23.2%(취업자의 33.5%)에 불과하다. 이를 관찰의 시점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의 대상자 중 실업 후 첫 번째 년도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대상자는 154명(5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43.4%인 118명의 실업자가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실업자 가운데, 두 번째 연도에 재취업하는 대상자는 26명에 불과하고, 취업률도 32.5%로 첫 번째 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마지막 관찰시점인 네 번째 년도, 즉 4년이 지나도 재취업하지 못하는 대상자도 8명이나 존재한다. 아래의 <표 3>는 실업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따른 연구대상의 빈도와 비

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대상의 재취업률과 정규직 재취업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2> 실업자의 재취업 현황과 재취업형태

	t년	t+1년	t+2년	t+3년	t+4년	t+1년-t+4년
실업자(진입)	272	272(100.0)	80(100.0)	28(100.0)	9(100.0)	272(100.0)
재취업자		154(56.6)	26(32.5)	7(25.0)	1(11.1)	188(69.1)
정규직		104(38.2)	19(23.7)	1(3.6)	1(11.1)	125(45.9)
비정규직		50(18.4)	7(8.8)	6(21.4)	0(0.0)	63(23.2)
실업자(유지)		118(43.4)	54(67.5)	21(75.5)	8(88.9)	84(30.9)

(단위: 명, %)

<표 3>는 연구대상자의 실업기간, 연령, 그리고 교육년수 변수를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의 관찰 시점까지의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실업기간(unemployment duration)은 1.43년이다. 이러한 실업기간은 실업을 유지하는 대상의 실업기간이 특정 년도 혹은 최후 2003년까지의 시점에 단절(censoring)된 것으로 계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대상의 평균 실업기간은 1.19년이고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평균 실업기간은 1.30년이며, 실업을 유지한 대상의 평균 실업기간은 1.88년으로 취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32세이고 중간 연령은 38세인데,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평균 연령(35.65세)이 가장 낮으며, 실업을 유지한 대상(43.54세) 그리고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45.23세)의 평균 연령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1.30년이고,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평균 교육년수는 12.26년으로 대상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실업을 유지한 대상자(10.70년)와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10.29년)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연속변수

변수	구분	정규직 재취업	비정규 재취업	실업 유지	전체
실업기간	평균	1.192	1.301	1.881	1.430
	중간값	1.000	1.000	2.000	1.000
	표준편차	0.470	0.638	0.986	0.765
연령	평균	35.656	45.238	43.547	40.312
	중간값	33.000	45.000	41.000	38.000
	표준편차	10.538	10.670	14.102	12.516
교육년수	평균	12.264	10.206	10.702	11.305
	중간값	12.000	12.000	12.000	12.000
	표준편차	2.661	3.0115	3.963	3.308

(단위: 년, 세, 년)

<표 4>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만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전체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64.3%인 175명이 남성이며, 35.7%인 97명이 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재취업형태별로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경우 남성의 비중(69.6%)이 전체 대상의 수치보다 조금 증가하며,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과 실업을 유지하는 대상의 경우 여성(41.3%; 39.9%)의 비중이 전체 대상의 수치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수치는 남성 실업자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여성실업자보다 용이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연구대상자 중 기혼자는 168명(61.8%)이고 미혼자는 104명(38.2%)이다. 그러나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미혼자의 비중(47.2%)은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수치(23.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이전 직장 업종분포는 민간서비스업이 전체의 33.8%로 가장 많고, 제조업과 소매·수리업은 각각 22.8%와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종에서는 생산직이 전체의 31.6%로 가장 높고,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이 19.5%인 반면, 사무직이 1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이전 직장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148명으로 전체의 54.4%로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인 이전 직장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케 한다.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범주변수

		(단위 : 명, (%))			
변수		정규직 재취업	비정규직 재취업	실업 유지	전체
성별	남자	87 (69.6)	37 (58.7)	51 (60.7)	175 (64.3)
	여자	38 (30.4)	26 (41.3)	33 (39.3)	97 (35.7)
결혼	미혼	59 (47.2)	15 (23.8)	30 (35.7)	104 (38.2)
	기혼	66 (52.8)	48 (76.2)	54 (64.3)	168 (61.8)
업종	농림어업건설	10 (8.0)	12 (19.0)	11 (13.1)	33 (12.1)
	제조	31 (24.8)	16 (25.4)	15 (17.9)	62 (22.8)
	공공서비스	11 (8.8)	13 (20.6)	15 (17.9)	39 (14.3)
	소매·수리	25 (20.0)	9 (14.3)	12 (14.3)	46 (16.9)
	민간서비스	48 (38.4)	13 (20.6)	31 (36.9)	92 (33.8)
직종	관리전문	29 (23.2)	4 (6.3)	16 (19.0)	49 (18.0)
	사무	20 (16.0)	1 (1.6)	10 (11.9)	31 (11.4)
	서비스	17 (13.6)	14 (22.2)	22 (26.2)	53 (19.5)
	생산	37 (29.6)	28 (44.4)	21 (25.0)	86 (31.6)
	단순노무	22 (17.6)	16 (25.4)	15 (17.9)	53 (19.5)
근무형태	정규	81 (64.8)	27 (42.9)	40 (47.6)	148 (54.4)
	비정규	34 (27.2)	24 (38.1)	31 (36.9)	89 (32.7)
	비임금	10 (8.0)	12 (19.0)	13 (15.5)	35 (12.9)

<표 4>에는 비중(%)의 수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이전 직장의 업종, 직종 및 고용형태별 재취업여부와 고용형태별 재취업여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업종의 경우 제조업(50.0%), 소매·수리업(54.3%), 민간서비스업(52.2%)에 종사하던 연구대상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50.0% 이상의 수준을 보이나, 농림어업건설업(30.3%)과 공공서비스업(28.2%)에 종사하던 연구대상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30.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농림어업건설업에 종사하던 연구대상의 비정규직 재취업률은 36.4%로 대상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실업자들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직종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던 대상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각각 59.2%와 64.5%로 매우 높은 반면,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던 대상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각각 32.1%와 4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던 대상의 비정규직 재취업률(8.2%; 3.2%)은 다른 직종(생산직, 32.6%; 단순노무직, 30.2%)에 종사하던 대상의 수치에 비해 매우 낮아,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던 대상의 비정규직 선호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에 종사하던 대상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54.7%로 비정규직(38.2%)과 비임금근로(46.0%)에 종사하던 대상의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아래의 <표 5>는 연구대상자 가운데, 재취업한 대상들의 업종과 직종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취업대상자의 업종은 민간서비스업(25.1%)이 가장 높고, 제조업(24.6%), 소매·수리업(20.8%), 농림어업건설업(16.4%), 공공서비스업(13.1%)의 순으로 나타나며, 직종은 생산직(29.7%)이 가장 높고, 관리전문직(21.1%), 단순노무직(20.5%), 서비스직(14.6%), 사무직(1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업종별 분포는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제조업(28.7%)과 민간서비스업(27.9%)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농림어업건설업(4.9%)의 비중이 가장 낮다. 반대로 비정규직의 경우, 농림어업건설업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농림어업건설업의 경우 취업자의 80.0%에 해당하는 대상이 비정규직에 재취업하여 다른 업종과는 차별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직종별 분포는 관리전문직이 30.9%로 가장 높고,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의 분포는 단순노무직(37.1%)과 생산직(35.5%)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재취업한 대상 가운데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자는 각각 1명(대상업종의 2.6%)과 5명(대상업종의 19.2%)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한 대상 가운데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자는 60.5%에 이르며, 생산직과 서비스직도 4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결국 업종별로는 건설업 그리고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의 비정규직 재취업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재취업자의 업종과 직종

		(단위 : 명, %)		
	변수	정규직 재취업자	비정규직 재취업자	전체
업종	농림어업건설	6 (4.9)	24 (39.3)	30 (16.4)
	제조	35 (28.7)	10 (16.4)	45 (24.6)
	공공서비스	16 (13.1)	8 (13.1)	24 (13.1)
	소매·수리	31 (25.4)	7 (11.5)	38 (20.8)
	민간서비스	34 (27.9)	12 (19.7)	46 (25.1)
직종	관리전문	38 (30.9)	1 (1.6)	39 (21.1)
	사무	21 (17.1)	5 (8.1)	26 (14.1)
	서비스	16 (13.0)	11 (17.7)	27 (14.6)
	생산	33 (26.8)	22 (35.5)	55 (29.7)
	단순노무	15 (12.2)	23 (37.1)	38 (20.5)

2) 생존표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의 실업상태 지속 추이에 대한 생존도와 재취업 위험도를 생존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생존표분석은 우선 총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에 실업자를 성, 결혼여부, 연령, 학력, 이전직장의 업종과 직종, 그리고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범주별 생존율 및 위험도 추이의 차이점에 대한 검증은 wilcoxon test를 이용하여 전체(overall)와 속성 범주별(pairwise)로 비교하였다.

<표 6>은 최장 실업기간이 4년인 연구대상의 실업상태 지속추이에 대한 누적생존율과 재취업위험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6>의 누적생존율은 연구대상이 연구기간 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재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이 13.06%임을 보여준다. 한편, 1년이 지난 시점의 생존율(실업유지율)이 39.13%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절반 이상의 대상이 실업 후 첫 번째 년도에 재취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구간별 생존율은 증가하고 재취업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을 보아,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대상의 재취업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표 6> 생존표분석 결과 : 누적생존율과 재취업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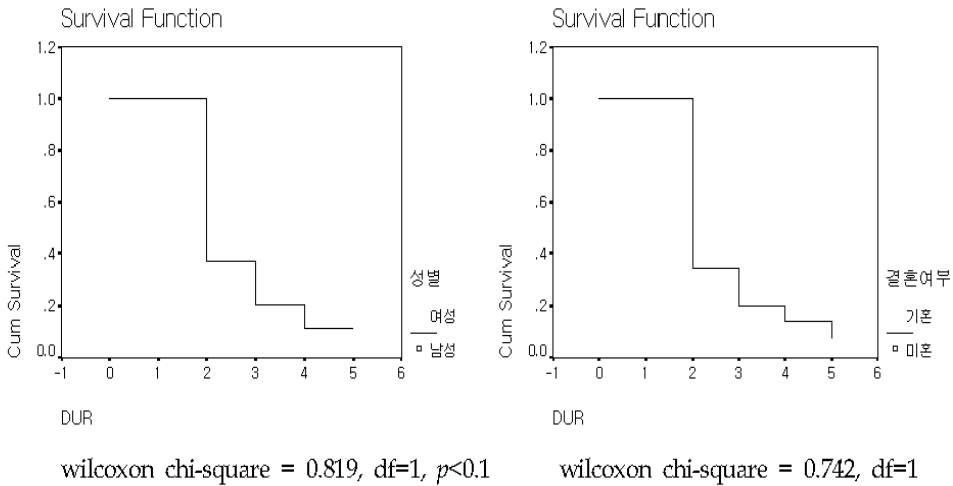
년	분석대상		재취업자	Censored	생존율	누적생존율	재취업위험도
0	272		0	0	1.0000	1.0000	0.0000
1	272	253	154	38	0.3913	0.3913	0.8750
2	80	67	26	26	0.6119	0.2395	0.4815
3	28	22	7	12	0.6818	0.1633	0.3784
4	9	5	1	8	0.8000	0.1306	0.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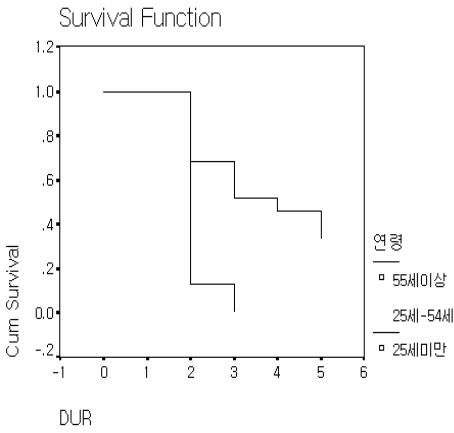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2>는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별 누적생존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관찰시점까지의 남성과 여성의 재취업비율은 각각 70.9%와 66.0%를 보이며, 남성의 누적생존율은 여성의 누적생존율에 비해 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재취업률이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성별로 남성의 재취업이 여성보다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은 미혼자의 누적생존율이 기혼자의 누적생존율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연령 집단별 누적생존율은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구의 관찰기간동안 연령이 어린 집단의 누적생존율이 높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5세미만과 25세-54세 연령집단의 재취업률은 각각 85.7%와 72.8%인데 반해, 55세이상 연령집단의 재취업률은 44.4%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은퇴 연령 이후 실업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 누적생존율은 고졸이하 집단의 누적생존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overall) 학력집단 간 wilcoxon test의 결과는 그렇지 않으나, 고졸

이하 집단과 고졸집단(pairwise) 간 누적생존율의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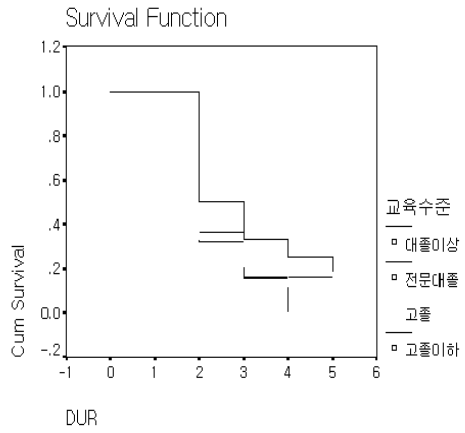
<그림 2>는 연구대상자의 누적생존율의 추이가 이전 직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조업과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 대상(pairwise) 간 누적생존율이 통계학적으로 한계(marginal) 수준($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 종사하던 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대상의 수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종별 누적생존율의 추이를 보면, 서비스직과 생산직, 그리고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의 기간 동안 서비스직에 종사하던 대상의 누적생존율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대상의 수치보다 매우 높고, 재취업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직장의 고용형태별 누적생존율의 추이를 보면, 정규직에 종사하였던 대상의 누적생존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직장 정규직 종사자의 재취업이 비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구대상의 특성별 누적 생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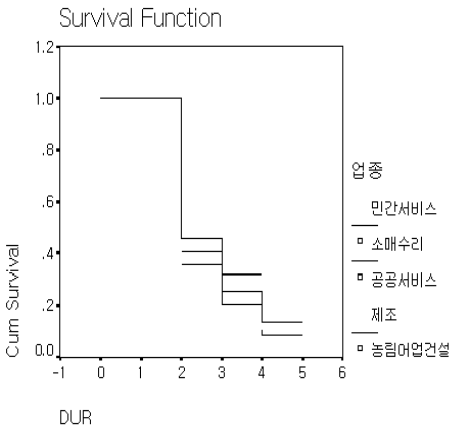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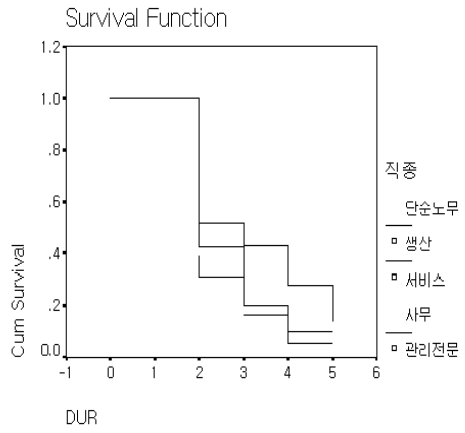
wilcoxon chi-square = 22.646, df=2,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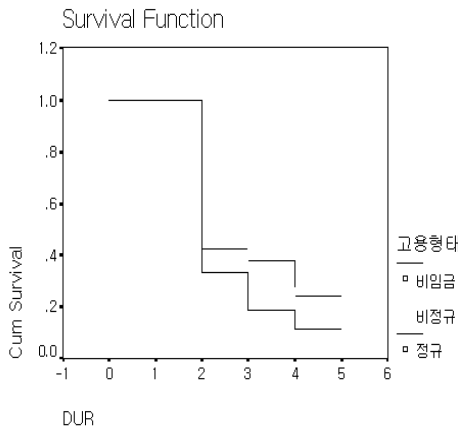
wilcoxon chi-square = 5.637, df=3



wilcoxon chi-square = 6.142, df=4



wilcoxon chi-square = 6.429, df=4



wilcoxon chi-square = 4.480, df=2, $p < 0.05$

3) 이산시간분석

이산시간분석의 결과, 실업자의 고용형태별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적속성과 이전직장의 업종, 직종, 그리고 고용형태 등이 고루 반영되어 있으며, 모델의 적합성도 확보되어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실업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정규직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에 재취업할 odds가 1.6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에 재취업하는 대상과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대상 간 이전 직장의 업종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의 경우, 서비스직에 종사하였던 대상이 정규직에 재취업할 odds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대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인적자본(교육수준)의 수준이 낮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그것과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재취업과 실업에 대한 성별 차이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분절된 노동시장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수준별 차이는 인적자본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¹⁴⁾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과 실업을 유지하는 대상 간 인적속성 관련변수의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즉, 비정규직에 취업한 대상과 실업을 유지하는 대상 간에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결혼여부별 차이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대상에 비해 농림어업건설업, 제조업, 공공소매업에 종사했던 대상의 비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전문직에 종사했던 대상에 비해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대상의 비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실업을 유지하는 대상에 비해 높게 나타난 업종과 직종들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직종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과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대상을 대비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다.¹⁵⁾ 이는 정규직 재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대비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여성과 고령자는 — 실업에 비해 — 재취업도 어렵지만, — 비정규직에 비해 — 정규직으로의 재취업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고령자의 비정규직 취업의 확률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규직 재취업과 비

14)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변수 이외에도 직업훈련 경험유무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여 보았는데, 교육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나 직업훈련 경험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분석대상 가운데 직업훈련을 받은 대상의 수가 8명으로 전체의 2.9%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5) 실제로 비정규직 취업자의 비중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15세에서 19세까지 연령집단의 비정규직 취업률도 전체 취업자의 94.7%에 이를 만큼 높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연령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범주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포함시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에 대한 교육년수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론에 입각한 설명은 정규직 취업과 실업자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 고용형태별 재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 차이를 살펴보면,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대상보다 농림어업건설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대상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재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대상의 정규직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종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종사했던 대상의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했던 대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철희·김교성(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재취업형태에 대한 이러한 연속성은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로 이해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이 재취업 현상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이었던 대상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임금근로자이었던 대상보다 정규직에 진입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표 7> 이산시간분석 결과 : 고용형태별 재취업 요인

	정규직 vs. 실업		비정규직 vs. 실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인적 속성						
남자(여자)	0.503 *	(0.263)	-0.481	(0.342)	0.984 *	(0.397)
연령	-0.060 ***	(0.015)	-0.006	(0.017)	-0.054 **	(0.020)
교육년수	0.105 *	(0.054)	0.061	(0.058)	0.044	(0.073)
미혼(기혼)	-0.214	(0.279)	-0.500	(0.356)	0.286	(0.415)
업종						
농림어업건설업	-0.355	(0.424)	0.974 *	(0.504)	-1.330 *	(0.600)
제조업	0.043	(0.326)	0.622 #	(0.502)	-0.579	(0.548)
공공서비스업	-0.348	(0.413)	1.137 *	(0.477)	-1.485 *	(0.579)
소매·수리업 (민간서비스업)	0.463	(0.331)	0.353	(0.512)	0.109	(0.566)
직종						
사무직	-0.256	(0.385)	-0.717	(1.157)	0.461	(1.183)
서비스직	-0.823 *	(0.423)	0.896	(0.677)	-1.720 *	(0.749)
생산직	0.263	(0.367)	1.730 **	(0.631)	-1.467 *	(0.681)
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0.582	(0.426)	1.323 *	(0.679)	-0.741	(0.747)
고용 형태						
정규직	0.625	(0.425)	-0.291	(0.436)	0.916 #	(0.551)
비정규직 (비임금)	0.613	(0.459)	-0.549	(0.494)	1.161 #	(0.616)
상수	-2.075 *	(1.172)	-4.078 **	(1.426)	1.262 *	(1.601)
N	661		-2LL		859.813	
X ² (df)	156.836***(30)		Negerlikerke R ²		0.268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5. 결 론

지금까지의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업자의 재취업과 고용형태별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변수는 성과 연령 변수이다. 남성과 여성의 누적생존율(실업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누적생존율이 여성의 수치보다 낮게 나타나며,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실업을 유지하거나 비정규직에 재취업하는 대상보다—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집단별 누적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과 고령층의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하여도 정규직으로의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만큼 여성의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높다.¹⁶⁾ 또한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⁷⁾ 그 이유는 가부장적 가치에 기초한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장지연, 2001). 따라서 여성과 고령층의 재취업과 정규직 재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성과 연령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¹⁸⁾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실업유지에 비해—정규직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적자본이론의 내용에 입각한 인적자본개발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실업자들이 보다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연구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재취업 대(vs.) 실업의 분석에서 교육수준 변수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실업자가 비정규직 재취업으로의 진입하는데 높은 수준의 학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실업자도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에 취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직 대(vs.) 비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분석의 경우, 비정규직의 인적자본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가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재취업가능성과 관련하여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수요, 그리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포괄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인적자본의 개발을 강조하면 학력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김유선(2003)의 주장은 일리가 있

16) 2003년 8월 현재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69.1%인 반면, 남성의 비중은 30.5%이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더욱이 장지연(2001)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70.0%를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

17) 2003년 8월 현재 55세-59세 연령집단의 비정규직 비중은 66.9%, 60-64세 연령집단은 86.7%,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집단은 89.1%이다. 참고로 25-39세 연령집단의 비정규직 비중은 50.0% 미만이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18) 황수경(2003)은 여성고용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모성보호와 기초보육의 사회적 지원의 확대,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셋째, 실업자의 재취업과 고용형태별 재취업 가능성은 이전 직장의 업종과 직종, 그리고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관리전문직에 종사했던 실업자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실업유지에 비해—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실업자보다 높은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전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이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민간서비스업에 비해—이었고, 직종은 생산직, 단순노무직, 그리고 서비스직—관리전문직에 비해—이었다. 이는 실업자의 정규직 재취업과 비정규직 재취업은 실업 이전에 어떤 업종과 직종에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부록의 <표 1>을 보면, 농림어업건설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실업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비중이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며, 또한 농림어업건설업의 경우 같은 업종의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비중이 52.4%에 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조업(68.2%), 소매·수리업(73.5%), 그리고 민간서비스업(78.3%)에 종사하였던 실업자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비중은 6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서비스직(45.2%), 생산직(42.9%), 단순노무직(42.1%)에 종사하였던 실업자의 비정규직 재취업 비중이 40.4% 이상으로 다른 직종(관리전문직 12.5%, 사무직 4.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단순노무직의 경우, 같은 직종의 비정규직에 재취업한 비중이 55.6%에 달하고 있다. 그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였던 실업자의 정규직 재취업 비중은 각각 87.5%와 95.2%에 달해 비교적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였던 실업자의 안정된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특정 업종과 직종의 노동시장이 이미 특정한 인적속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때문에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가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드러난 업종과 직종별 분절적 구조는 고용안정, 임금, 근로조건, 기술의 차이와 그 차이의 심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방하남, 1998; 강철희·김교성, 1999). 따라서 이들 집단에게 세분화된 고용지원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¹⁹⁾ 그리고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19)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 재취업의 가능성이—실업유지에 비해—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수준 변수는 학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개인의 직업 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에는 일정 수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철희·김교성. 1999.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9: 5-40
- 강철희·김교성·김진욱. 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모수적 생존 모델(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1-31.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비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권혜자. 1996.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교성·류만희. 2000. "서울시 장기실업자의 실태와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6(2): 83-108.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결정요인".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류기철. 1998.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한국경제학회지』.
- 류재우·김재홍. 2000. "근래의 상용직 비중 변화의 양상과 요인". 『제2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신동균. 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1998. "한국 실업구조의 특징과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1998학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6.
- 방하남 외. 2002.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IV): 한국노동패널 4차(2001)년도 자료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유태균. 1999. "IMF 이후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9: 210-237.
- 장지연. 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1: 68-96.
- 한국노동연구원. 1999. 『한국노동패널조사 2차년도 조사자료 Questionnaire & Code Book』.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비정규노동』. 27호.
- 황수경. 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Allison, P. D. 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Cary, NC: SAS Institute.
- Allison, P. D.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Cary, NC: SAS Institute.
- Curti, M. 1998. "Does Economic Stagnation Affect Unemployed Workers, Even When Re-employe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19 (6): 410-423.
- Idson, T. L. and R. G. Valletta. 1996. "Seniority, Sectorial Decline, and Employee Retention : An Analysis of Layoff Unemployment Spel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 654-676.
- Levine, P. B. 1993.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Insured and Uninsured Unemployed."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7: 73-86.
- McCall, B. P. 1997. "The Determinants of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715-734.
- Meyer, B. D. 1990.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58: 757-782.
- Vesalainen, J. and J. Vuori. 1999. "Job-seeking, Adaptation and Re-employment Experience of the Unemployed: A 3-year Follow-up."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9: 383-394.

부 록

<표 1> 취업자의 이전 직장의 업종 별 재취업 직장의 고용형태와 업종

(단위 : %)

		이전직장의 업종				
		농림어업건설	제조	공공서비스	소매수리	민간서비스
정규	농림어업건설	9.5	2.3	--	5.9	1.7
	제조	4.8	52.3	4.2	8.8	11.7
	공공서비스	4.8	2.3	16.7	5.9	13.3
	소매수리	9.5	6.8	12.5	47.1	11.7
	민간서비스	14.3	4.5	12.5	5.9	40.0
	소계	42.9	68.2	45.8	73.5	78.3
비정규	농림어업건설	52.4	20.8	20.8	5.9	6.7
	제조	--	4.2	4.2	--	1.7
	공공서비스	--	29.2	29.2	--	--
	소매수리	4.8	--	--	14.7	1.7
	민간서비스	--	--	--	5.9	11.7
	소계	57.1	21.7	54.2	26.5	21.7

<표 2> 취업자의 이전 직장의 직종 별 재취업 직장의 고용형태와 직종

(단위 : %)

		이전 직장의 직종				
		관리전문	사무	서비스	생산	단순노무
정규	관리전문	56.3	42.9	6.5	9.5	7.9
	사무	15.6	38.1	16.1	3.2	2.6
	서비스	6.3	9.5	25.8	3.2	5.3
	생산	9.4	4.8	--	33.3	21.1
	단순노무	--	--	6.5	7.9	21.1
	소계	87.5	95.2	54.8	57.1	57.9
비정규	관리전문	--	--	3.2	--	--
	사무	3.1	--	--	6.3	--
	서비스	3.1	--	29.0	--	2.6
	생산	3.1	--	3.2	23.8	13.2
	단순노무	3.1	4.8	9.7	12.7	55.6
	소계	12.5	4.8	45.2	42.9	42.1

Discrete Data Analysis of the Re-employment Pattern

Kim, Kyo-Seong
(Chung Ang University)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employment pattern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using pooling 6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2003). A discrete data analysi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reemployment pattern. Among those who lose full-time or part-time job in previous year, women and older people are found to have both longer unemployment durations and lower probabilities of full-time reemployment (versus either each of part-time reemployment or unemployment) than men and younger people. Therefore, the future labor market policy should be more associated with the one for reducing these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worker characteristics.

Key words: unemployment, reemployment pattern, atypical workers, discrete data analysis

[접수일 2005. 2. 24. 게재확정일 2005. 4. 8.]